

돼지시세 수입돈육

방출로 조정 예상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서론

3월 15일 드디어 돼지고기 수입계획에 의한 공개입찰이 축산무역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10여개 수출대행업체가 응찰되었으니 그중에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곧바로 선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국내에 도착하여 유통될 수 있는 시기는 4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입찰을 본 물량은 축협중앙회에서 수입하는 3천톤이며, 그 내용은 삼겹살 2천3백톤, 갈비 7백톤이다. 방출은 농림수산부의 통제하에 국내시세의 등락에 따라 조절, 방출될 것이다.

3천톤의 물량은 돼지 6만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3개 도매시장의 10일간 작업물량이 되는 것이다. 시세형성이란 것이 적정물량에서 조금만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에 의하여 등락이 심해지는 경향을 참작할 때 이번의 3천톤은 '94년의 시세조정에 충분한 물량이 되는 것이다.

2. 물가 잡기는 생산자 잡기

양과값이 오른다고 수입하고, 돼지값이 오른다고 수입한다면 도시에 사는 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이지 3D의 약조건하에서 일하는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름

지기 현정(賢政)이란 골고루 살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배추가 밭에서 썩어갈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손을 못쓰는 정부가 수입하는 데는 어찌 그리 민첩하게도 행동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농어촌 구조개선이라 하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었지만 농민이 밭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인색한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돼지시세가 조금 좋아서 그간의 빚을 청산하도록 기회부여를 해준다면 그것이 국제경쟁력 제고가 되는 것이지, 농민을 빚더미 위에 앉혀 놓는 것이 경쟁력제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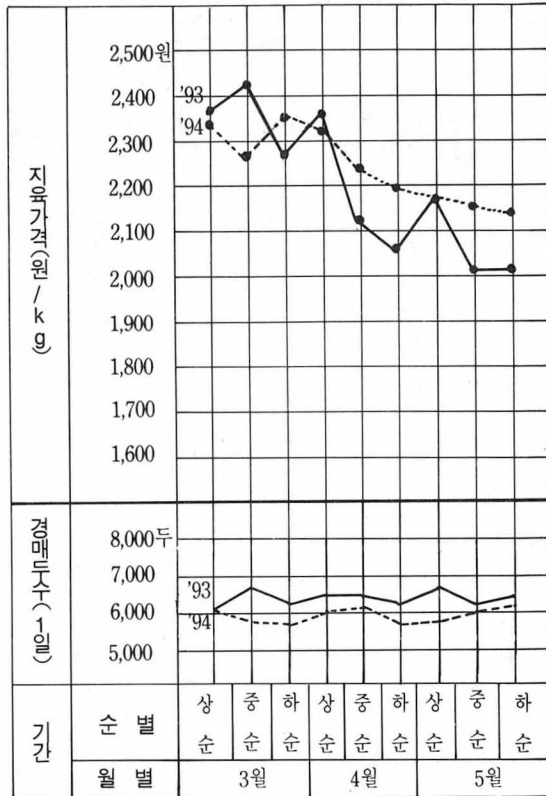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농어촌발 전위원회가 발족되어 농민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그것을 직언하는 기구란다. 하지만 농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크지 못함은 당위성과 대선공약까지 포함된 사료부가가치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진언하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농업인구 비율이 아직도 높으니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3. 양돈시세 전망

이제는 전망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될 것으로 본다. 오르면 방출하여 조정할 것이니 물가당국이 소비자를 또 얼마나 옹호하여 가격조정을 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전개될 것이다.

양축농민들은 돈육이 들어온다 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겠지만, 좀 더 생각하는 양축가들은 외국에서의 작업과 선적, 배의 운송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인 즉, 상황판단과 정보입수를 하여서 적시 출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또한, 4월 하순 이후에도 심리적 작용에 의하여 출하물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하락된다면 방출은 하지 않을 것인 즉, 수입육 유통에 너무나 큰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금년의 4, 5월 시세 예상은 수입육의 방출을 감안하여 〈표 1〉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두수 통계(3월분)도 아직 안나왔고 2월 사료생산량도

미발표된 상태여서 정확치는 않으나 출하대상돈이 충분치 못한 것은 확실시되므로 오름세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처하는 수입의 민첩성이 속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야겠다. ■■■

